



[금융]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라이프
GS25, 증권사와 만났다
오프라인 금융플랫폼 거듭
니



Life



서울시, 소상공인에 5조원 지원... 대출 열흘 내 완료

신용공급 규모 3.8조→5조 확대 대출 기간 단축해 10일 안에 입금 상당·서류 위한 방문 절차 간소화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공급 규모를 5조 원대로 확대하고 대출 전 과정을 10일 이내로 단축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오전 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로 자금경색과 부도위협에 몰려있는 중소기업인들의 절박함을 해결하기 위해 신용공급액을 총 5조9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신용공급 규모는 기존 3조8050억원에서 5조900억원으로 1조2850억원 증액된다. 시는 코로나 사태 발생 초기인 2월 초부터 최대 1%의 저금리로 ‘코로나19 긴급 경영 안정 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금’을 지원해왔다.

박원순 시장은 “긴급 경영 자금이 ‘그림의 떡’이 아니라 ‘내 손 안의 떡’이 될 수 있도록 몽골기병과 같은 속도전을 벌이겠다”며 “보증상당부터 대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해 자금 신청 후

열흘 안에 통장에 입금될 수 있도록 하는 ‘열흘의 약속’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시는 시중은행과 협력해 상당에서 대출에 이르는 전 과정이 10일 이내(영업일 기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증업무 혁신 프로세스 체계를 만들

기 위해 시는 4월 중 우리·신한은행 564개 지점에 ‘서울시 민생혁신 금융 전담 창구’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각 지점별로 전담 인원이 배치된다.

다만 현재까지 밀린 상당·심사 건수가 3만여건에 달해 다음달 중순까지 이를 해결하고 그 후부터 10영업일 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상당, 서류접수, 보증약정 체결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을 3~4회 방문해야 했던 것도 은행을 1~2회만 찾으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보증심사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금융권 업무 경력을 보유한 인력 300명을 기간제로 채용했다. 지난 2일에 50명을 선발해 투입했고 내달 초까지 250명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으로 매출 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인건비 등 긴급 고정비용 마련을 위한 대출 지원을하기로 했다.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 1.12%(3월 기준), 보증요율 0.5%(법정 최저), 보증비율 100% 조건으로 2000만원까지 일괄 용자 지원한다. 총 규모는 2000억원이다.

영세 소상공인이 제2금융권 등에서 연 15% 이상의 고금리로 자금을 대출한 경우 이를 보증료 포함 연리 2.3% 수준으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은 6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업체당 대환대출 가능 한도는 3000만원이다. 시는 5년간 업체당 1200만원씩, 총 250억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박원순 시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혁신행정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 위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소방관 아저씨 힘내세요” 구급대 향한 응원 행렬 서울시, 디지털성폭력 가해자 추적·고소

서울 119구급대, 의심환자 2843명 이상 구급대 향한 응원·마스크 기부 이어져

서울에서 119구급대를 통해 이송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 중 4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19구급대가 1월 24일부터 3월 23일 오전 7시까지 코로나19 의심환자 2843명을 이송했으며 이 중 4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2주간(3월 8~21일)만 보면 1075명을 이송했고 이 가운데 확진자는 27명이었다.

23일 오전 9시 기준 의심환자 이송 등으로 감염관찰 및 자가격리 중인 소방공무원은 27명이다. 해제된 이까지 합한 자가격리 대상 소방공무원 누계는 967명이었다.

현재 119구급대원들은 감염 위험을 차



중랑구 원목초등학교 2학년 김도윤(9세) 학생과 김민준(6세) 어린이가 119구급대원에게 응원의 손편지를 전달하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다. 직원 구내 식당에는 임시 칸막이를 설치했고 식사 중에는 마주 보고 앉을 수 없도록 했다. 선별 진료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현장민원실도 됐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격리된 119구급대원에게 긴

급구조 재난키트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이송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을 향한 응원과 마스크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강남소방서 관계자는 “지난 23일 학동초등학교에 다니는 형제가 소방서를 방문해 마스크 21개와 ‘소방관 아저씨 힘내세요’라고 적힌 응원의 손편지를 전달하고 갔다”고 말했다.

강서소방서 코로나19 전담 구급대는 이달 19일부터 인천공항 검역소에 지원 근무 중이다. 이들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내·외국인 중 감염의심 환자를 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신열우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119구급대원에게 보내주는 격려와 응원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소방은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디지털성폭력 가해자 추적·고소

제2의 n번방 피해 막기 위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나서

서울시가 민간단체와 함께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업로드하는 운영자와 구매자, 소지자를 추적해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추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제2의 n번방 피해를 막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특화한 디지털 성폭력 전방위 지원에 나서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전문 활동가들과 텔레그램, 채팅 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상시 감시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업로드하는 운영자, 구매자, 소지자를 찾아내 이들을 고소·고발할 방침이다.

시는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SNS 상에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재유포하는 수많은 방들이 만들어지고 있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시는 불법 영상물을 업로드한 운영자와 구매자들을 파악해 증거를 채취하고 고소를 추진한다.

익명 상담과 긴급 신고가 가능한 심대 전용 온라인 창구는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 플랫폼인 ‘온 서울 세이프’에 5월 신설된다.

아울러 시는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예방 및 조기개입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가해자들이 SNS에 접근해 성 착취로 유인하는 구조를 이용해 전문 상담사가 같은 방법으로 위협에 노출된 아동·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 범죄 위험을 사전에 알리는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서울 마포구, 코로나19 대응 ‘긴급 독서지원’

예약 바로대출 등 접촉 최소화

서울 마포구는 코로나19로 중단된 독서 지원 서비스를 일부 재개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예약 바로 대출 서비스 ▲상호대차 서비스 ▲어르신·임신부 대상 책배달 서비스를 운영한다.

‘예약 바로 대출 서비스’는 마포중앙도서관과 서강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도서 대출 사전신청을 하면 다음날 지정된 도서관에서 원하는 책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1인당 최대 3

권을 대출할 수 있다. 예약 가능 시간은 오후 3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다. 신청도서는 바로 다음날(주말 제외)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수령할 수 있다. 마포구립도서관 회원이면 이용 가능하다.

임시 중단된 상호대차서비스도 일부 재개된다. 마포어린이영어도서관, 꿈나래어린이영어도서관을 제외한 마포구립도서관 13곳에서 도서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도서의 수령은 주말을 제외하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마포중앙도서관, 서강도서관에서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마포구립도서관 책이음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마포중앙도서관은 코로나19로 멈춘 어르신 책배달 서비스인 ‘북실북실’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임신부를 위한 책배달 서비스도 추가해 집으로 책을 전달할 예정이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마포구립도서관 회원 중 출산 전 임신부와 만 65세 이상이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3권까지 신청 가능하다.

구는 모든 대출 도서를 소독 후에 제공할 방침이다. 책을 받아보기 위해 도서관에 방문하는 주민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도서 반납은 구립도서관의 반납함을 이용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공공임대주택 320호... 2022년 입주

서울시가 서대문구 연희동 교통섬과 은평구 증산동 빗물펌프장에 공공임대주택 320호를 짓는 ‘청년 맞춤 콤팩트시티’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서울시는 연희·증산 공공주택 복합시설 지구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올 하반기 착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 맞춤 콤팩트시티 사업은 2022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연희동 공공주택은 청년 유동 인구가 많은 경의선숲길, 경의중앙선 가좌역, 흥제천을 연결하는 지점이라는 특성을 살려 ‘대학생 커뮤니티 주택’으로 만든다. 연면적 1만4378㎡, 지상 7층 규모로



연희 교통섬 공공임대주택 설계안. (서울시)

수용 가능 인원은 198명(154세대)이다. 증산동 공공주택은 빗물펌프장 상부에 인공 테크를 설치해 새로운 지층을 만들고 그 위에 짓는다. 연면적 1만4602㎡에 지상 13층 규모로 1인 주택(111호)과 공유주택(55호)을 포함, 총 276명이 입주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